

95. 9. 30 창간호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발행인 : 추지석 ● 편집인 : 최주섭 ● 발행일 : 95. 9. 30 ● 격월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404호 ☎ 761-0280~2
[KFRA 환경사랑]에 실린 글은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초 점

스티로폴 재활용 크게 확산

- 상반기 작년대비 24% 증가한 5,220톤 재활용
- 전국 42개 시군구에서 스티로폴의 분리수거에 참여



스티로폴 재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년 상반기동안 페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은 모두 5천2백2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백10톤에 비해 무려 24%나 증가했으며 중국·일본 등에 지난 4월 이후 3개월동안 재생수지 형태로 4백43톤(5톤 차량 1,000대분)을 수출하는 등 스티로폴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송파구, 대전시 서구, 오산시 등 전국 42개 시군구에서 스티로폴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는 도내 36개 모든 시군에 스티로폴의 부피를 50분의 1로 압축하는 감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스티로폴의 재활용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깨끗한 지구를 가꾸기 위한

환경보호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연간 스티로폴 발생량의 4분의 1인 10,000톤을 매립하는 대신 회수, 재활용 하였을 경우 주민에게는 종량제 봉투구입비 절감으로 37억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12억원, 기업에는 재생업체의 수익증대로 8억원 등 약 57억원(표참조)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며 쓰레기 봉투에 담기 위해 스티로폴을 잘게 부숴야 하는 수고를 덜게 해주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삼림자원의 보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표)스티로폴 1만톤 회수 재활용시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기 대 효 과
주 민	종량제 봉투구입비 절감	37 억원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12 억원
기 업	재생업체 수익 증대	8 억원
기 타	삼림자원의 보존	지구온난화 억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스티로폴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용산 전자상가, 가전업체 등 대량 소비업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회의 회원사 등이 회수 재활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페스티로폴은 재생수지화 하여 사진액자, 창호틀, 욕실발판,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쓰이고 이외 경량콘크리트 원료와 신발접착제의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금년 상반기동안 페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은 모두 5천2백2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백10톤에 비해 무려 24%나 증가했으며 중국·일본 등에 4백43톤을 수출하는 등 스티로폴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